

참사랑 농장 시 살처분 관련 익산시 입장 표명

익산시, 농장서 살처분 철회 권고안 동의 안해 조정실패 식용란 보상금 등 지속적 지원 "불이익 준 적 없다" 주장

참사랑 농장의 닭 등에 대한 살처분 명령 거부로 인해 익산시로부터 보조금 지원 등의 불이익을 받아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다는 주장에 대하여 익산시는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관련 입장을 밝혔다.

당시, 2016년 11월부터 전국 37개시군에서 52건의 고병원성AI가 확산되었으며 익산시는 2017년 2월 용동면에서 AI가 최초 발생하였고, 1주일 후 2곳의 농가에서 추가 발생하는 등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농식품부에서 예방적살처분범위 확대가 결정되었고, 최초 발생농가 반경 3km 내에 사육하고 있는 닭·오리 등 20농가에 3월 10일 살처분을 명령하

고 차단방역을 시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참사랑농장'은 살처분을 거부, 2017년 3월 살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이 진행중인 2017년 5월 1일, 전주지방법원은 "익산시는 살처분명령을 철회하고, 참사랑 농장은 곧바로 이 사건의 소를 취하하라."는 조정권고를 하였다.

이에 익산시는 살처분명령 당시 본래 목적인 AI 전파위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농가피해 최소화 등을 위하여 살처분명령 철회에 적극 동의하였으나, 참사랑농장이 동의하지 않아서 조정점에 실패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공익 상의 필요성을 들어 참사랑농장

의 패소를 결정하였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다.

또, 익산시는 참사랑농장에서 제기한 살처분취소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거나 제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AI 방역과정에서 이동 제한된 식용란 9만여개의 보상금도 전라북도에 수차례 건의하여 2018년 9월 2740만원을 지급했고, 2019년 요청한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자금 1억2000만원도 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해 농가에서는 68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사업은 현재 전북도에서 심사 중으로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9년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3억원은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 후 농가에게 통보했으나 현재까지 농가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상태이며,

2019년 신규사업인 산란계농장 난좌 지원사업도 농가에게 지원 가능하다고 직접 연락하는 등 익산시는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 전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1억원은 시에서 배정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신청농가가 기존 용자금이 상환되지 않음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받지 못한 상황으로 익산시는 일반 농가와 동등하게 규정을 적용해 지원해오고 있으며 AI 살처분 거부 및 소송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익산시는 "참사랑농장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당시 살처분 명령의 취소 소송과는 별개로 앞으로도 참사랑 농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시의회의는 30일 군산시청 브리핑실에서 (주)농심이 새우깡의 원료인 꽃새우를 미국 등 해외로 변경해 군산 어민은 물론 전북 어민들의 생존권마저 박탈하고 있다며, 서해바다 환경오염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시의회 "농심은 감탄고토 행위 중단하라"

서해바다 환경오염 핑계로 새우깡 원료인 꽃새우 수입산으로 대체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는 30일 군산시청 브리핑실에서 서해바다 환경오염을 핑계로 (주)농심이 새우깡의 원료인 꽃새우를 미국 등 해외로 변경해 군산 어민은 물론 전북 어민들의 생존권마저 박탈하고 있다며, 서해바다 환경오염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농심 새우깡은 48년 동안 군산 앞바다에서 잡힌 꽃새우를 사용해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국민과자 임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서해바다의 환경오염을 이유로 수매를

중단한다는 것은 값싼 수입산으로 주원료를 대체하기 위한 대기업의 알뜰한 수작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48년 동안 농심만을 믿고 납품해온 군산시 어민들을 배신하고 원가절감만을 생각하는 (주)농심의 행태는 대기업의 비윤리적, 비도덕적 행태"라고 덧붙였다.

특히 "서해바다 환경오염을 지적하는 것은 서해에 서식하는 모든 생선류에 잘못된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뿐만 아니라 서해바다를 주 생활권으로 살아가는 군산, 김제, 부안,

고창 등 전북 어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로 그동안의 어민들의 수고와 고통을 잊는 '감탄고토(甘呑苦吐)'의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군산시의회는 "농심은 서해바다 환경오염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수매 중단 즉각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군산시는 물론 전라북도, 더 나아가 전 국민적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비수급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복지 확대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 수혜 대상자 발굴을 위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국민기초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중위소득 30%이하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 수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한다고 밝혔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실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녀 등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않아 국민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에 대해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을 완화해 수혜 대상자를 확대, 매월 일정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지역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나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점이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특성에 맞게 지원대상을 확대해 구제하는 지역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북에서도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시행)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1개월 이상된 실거주자로, 소득은 가구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이며 재산은 9,500만원 이하인 세대주 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 할 수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병해충 종합방제 철저 당부

이삭거름 적기시용· 병해충 종합 방제 필수

익산시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벼 출수 전후를 중심으로 이삭거름을 적기에 사용하고 병해충 종합방제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이삭거름은 벼 이삭이 줄기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할 무렵에 수량증가 효과를 보기 위해 주는 웃거름으로 보통 이삭패기 25일 전에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삭패기 15일 전 (어린 이삭 줄기가 1 ~ 1.5mm 생길 때) 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는 중만생종 신동진벼의 경우 이삭거름 주는 시기는 7월 20일경이 적기이지만 최고품질의 쌀 생산을 위해서는 10일정도 늦춰 30일경에 주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신동진벼는 쓰러짐에 약하므로 가급적 늦게 주는 것이 좋다.

사용량은 10a당 NK복비(18-18)를 10~12kg을 사용하면 되나 벼의 잎색이 너무 짙거나 웃자라 쓰러짐이 우려되는 포장이나 앞도열병이 심한 논은 가리질 비료만 시비해 병해충과 쓰러짐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

거름을 주는 시기가 너무 빠르면 등숙불량이 발생해 쌀 품질이 저하될 뿐 아니라 벼 키를 키워 쓰러짐에 약하고 이삭이 출수된 후에도 이삭목과 벼알에 질소 성분이 많아져 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주는 시기에 따라 쓰러짐, 수량, 미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적기시용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벼 출수기 전후로 병해충 예방 종합방제도 필수이다.

벼 병해충 예방결과에 의하면 벼멸구와 흰등멸구, 흑명나방과 같은 벼 비래해충이나 돌발성 해충은 아직 발생되지 않았으나 전년도에 출수기 이후 잎집무늬마름병, 세균성벼알마름병이 발생함에 따라 사전에 예방 종합방제가 필요하다.

잎집무늬마름병은 고온 다습한 조건 즉 밀식하고 질소질 비료를 과용한 논에서 병이 진전이 빨라지고 세균성 벼알마름병은 벼 출수기 비가 올 때 많이 발생된다. 병이 발생하면 수확량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병과 동시방제가 효과적이다.

벼 먹노린재는 월동하여 6월 하순에서 7월 상순에 일부 출현함에 따라 농가별로 1차 방제를 실시했으나 그 중 살아남은 약충과 성충이 8월중에 벼줄기에 구멍을 뚫고 흡즙하여 심하면 수확량에 큰 영향을 주므로 다른 해충과 동시방제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 10일부터 20일까지 벼 병해충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홍보물 4천부와 현수막, SNS 등을 활용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익산시, 대관천 정비사업 준공식 개최

미륵산· 주변 경관 개선, 하류 구간 홍수처리 능력 증대

익산시는 30일 삼기면 죽청마을·미륵산 권역센터에서 대관천(소하천) 정비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국비 15억2900만원, 시비 15억2800만원 등 총 사업비 30억 5700만원이 투입돼 2년여 만에 준공됐다.

사업 기간 동안 교량 5개소, 취입보 등 7개소, 제방 1.25km 등의 정비가 완료됐다.

특히 사업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을 보전하여 수질개선과 하천 주변까지 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익산=장영원 기자

대관천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미륵산 및 주변 경관 개선은 물론 하류 구간의 홍수처리 능력이 증대되어 홍수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뒀다.

뿐만 아니라 주민쉼터 및 과교라, 벤치 등을 설치해 지역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 제공은 물론 미륵산 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산업 및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치수 안정성을 확보해 홍수로부터 농지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익산=장영원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